광주 교육 소식

광주시교육청, 교사·학부모 봉사활동 역량 강화 연수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각급 학교 학생봉사활동 담당교사와 '학부모 지도봉사단' 학부모 500여 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20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과 유관기관은 연수에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정책을 소개하고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을 안내했다. 이어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학교 봉사활동 교육방향'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또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안내했다. '행정자치부 1365, 보건복지부 V ms, 여성가족부 dovol' 등 봉사활동 유관기관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자원봉사 사례도 공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 초 담당자들의 봉사활동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손덕원 기자 sdw@

전남대 '2017직원역량강화 우수대학'

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가 교육부의 2017년도 국립대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국립대 직원역량강화 운영성과 평가제도는 대학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립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도입됐으며, 전남대학교는 2013년 최초 평가와 2014·2015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바 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평가에서 총장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 업무 담당자의 의지가 매우 높게 드러나는 등 대학 내에 직원 역량강화를 지향하는 열정이 문화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대학의 목표를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직원 행동특성을 역량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상호 긴밀한 연계를 달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5개 분야, 25개 교육훈련과정이 체계화된 점, 현장 튜터링이나 학습동아리 등의 시스템을 잘 갖춰 높은 직원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성 기자 his@

광주세광학교의 특별한 하루

장애인의 날 맞아 교사들 아침 노래 공연, 학부모들도 뮤지컬 등 선보여

제37회 장애인의 날은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세광학교(교장 김은희) 학생들에게 특별한 하루가 되었다.

이날 세광학교 교직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포옹하고 축하 공연 '애들아 사랑한다'를 진행했다. 교직원들은 기타를 연주하며 "우리의 제자가 되어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는 마음과 축복의 노래를 전했다.

이후 오전 10시30분엔 장애인 합창단 지휘자이자 음악기획자인 허연희 학부모가 진행하는 '초청 음악회'가 대강당에서 열렸다. '꿈의 날개를 달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광주지역에서 활발한 연주활동 중인 전문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구성됐다.

함께한 음악인들은 성악과 뮤지컬, 앙상블, 피아노 듀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선곡도 미녀와 야수, 모아나, 오즈의 마법사 등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구성해 각 공연마다 큰 박수와 앙코르를 받았다.

또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광주영어방송국 '라디오스타'에서 녹음방송도 진행했다. 이날 방송은 22일 11시05분, 98.7MHz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직원들도 함께 이날 여러 행사를 지원하고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부교육청 김홍식 교육장도 학교 행사를 함께하며 학생과 교사들을 격려했다.

김은희 교장은 "노래에 날개를 달고 꿈을 펼쳐 이루자"며 "음악의 잔잔함이 가슴을 폭풍치게 하는 감동의 연주회로 재능기부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시월스럽게 부른 노래들은 일상에 지친 학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만철 기자 jmc@

호남대, 제 1기 부동산 자산 전문가과정 개강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4월 20일)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자산 전문가 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장석주 평생교육원장, 오병태 주관교수, 김병복 한국감정원 광주 지사장, 남상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강식에는 남상철 부장의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방향' 주제 특강을 비롯해 부동산 자산 전문가 과정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

호남대 사회융합대학원(원장 김한배)과 평생교육원(원장 장석주)이 공동주관하는 부동산 자산 전문가 과정은 부동산 입지 개발 주택사업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 및 시장분석과 금융·감정 등에 관한 종합적 실전분석으로 효율적 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한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이다.

또 참여자 전원에게 호남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와 공자학원 중국어 회화과정 수강 등의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부동산 자산 전문가 과정은 부동산 실무 전문가들의 강의와 현장학습 등으로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된다.

한편, 호남대학교 부동산 자산 전문가 과정 상담은 평생교육원(062-380-85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만철 기자 jmc@

교육평가의 기본 철학 찾자

광주초등수석교사회, 2017년 교육기부 수업혁신 워크숍

광주초등수석교사회(회장 송미나)가 19일 오후 2시30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2017 광주초등수석교사회 교육기부 수업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연계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평소 수업문화 혁신에 관심이 많은 교원과 전문직 등 광주교육가족 150여 명이 참석한 이 번 워크숍은 2015개정교육과정으로 새롭게 대두된 수업연계 과정중심평가 실현을 위한 초등수석교사들의 단위학교 지원활동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2017 광주교육 수업문화 혁신을 위한 워크숍 주제로는 수업연계 과정중심평가 실현 방안(수문초 송미나), 공부 본능을 되살리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평가(하백초 기명숙), 학생배움중심 수학과 수업전략과 평가(광주양산초 구미전), 질문 있는 영어수업과 과정중심 평가(용주초 정유경), 놀이를 통한 인성교육의 실제의 실제와 평가(광주제석초 양혜숙), 배움과 감성이 일어나는 미술수업과 평가(정암초 김영미)로 6명의 수석교사가 교육기부 차원에서 강사로 참여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은 "수석교사회가 현재 과정중심평가로 혼란스러운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과정중심평가 정착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은 물론 교육평가가 가지고 있는 평가의 기본 철학과 본질까지도 바르게 세우는데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전했다.

조만철 기자 jmc@

광주 하남초, 학부모 명예교사 100명과 함께 '과학축제'

광주 하남초등학교(교장 김숙자)가 과학의 달을 맞아 19일 학교 운동장과 강당, 교실에서 전교생 750여명이 참여하는 '과학 축제'를 운영했다.

하남초는 이날 '하남 과학 체험'을 주제로 '과학체험부스, 야외체험, 과학탐구대회, 과학영상관람' 4개 영역의 행사를 진행했다.

'지시약을 이용한 비밀편지' 외 10개 부스가 마련된 '과학체험부스'와 '운동장에서 소금으로 만든 슬러쉬' 등 10개 야외체험활동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냈다.

과학탐구대회는 '과학미술, 기계공학, 항공우주' 분과로 나눠 진행됐고 각 교실에선 과학영상 관람 행사가 학생들을 반겼다.

광주 하남초는 각 체험활동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특히 과학체험활동을 위해 위촉한 100여 명의 학부모 명예교사와 축제를 함께 진행해 안전과 내실 있는 운영을 확보했다. 학부모 명예교사는 담당 교사와 각 체험활동을 함께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과학 지식을 전달했다.

조만철 기자 jmc@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과도하지 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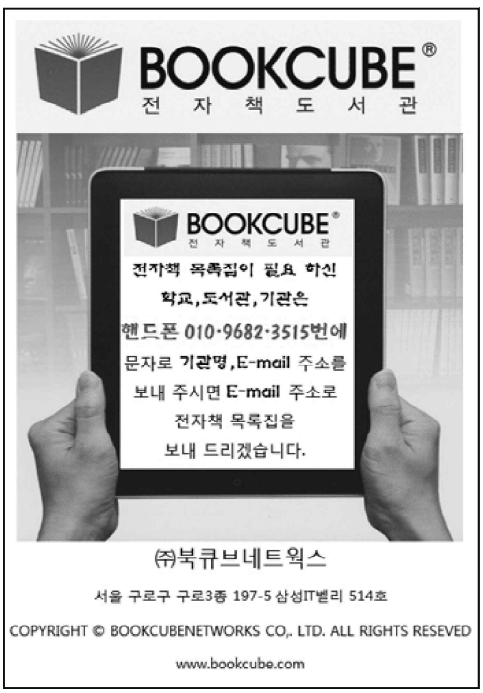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 기관·학교 담당자 390명 대상,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0일 오후 2시 광주학교시설지원단 대강당에서 관내 전 기관과 학교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담당자 3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점차 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피해 예방으로 학생·학부모와 교직원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표 항목별 사례 교육이 실시됐다. 시교육청은 특히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시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

바로 이어진 정보보안 분야에선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실무 위주 교육을 진행했다. 정보보안 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기관과 학교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자체적인 관리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와 보안 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덕원 기자 sdw@